



말오줌때 / *Euscaphis japonica* (Thunb.) Kanitz

구분	설명
생물분류	식물
속국명	말오줌때속
과국명	고추나무과

과명	Staphyleaceae
일반특징	<p>요약설명 : 고추나무과 낙엽 활엽 관목으로 우리나라의 황해도 바닷가와 전라남도, 경상남도에서 자라며 베트남, 중국, 일본에서도 볼 수 있다.</p> <p>분포지역 : 베트남, 중국, 일본; 황해도 해안과 전라남도, 경상남도.</p> <p>형태 : 낙엽 활엽 관목.</p> <p>크기 : 높이 5 ~ 6m.</p> <p>꽃색 : 녹색</p> <p>개화기 : 5월</p> <p>잎은 마주나고 홀수 1회 깃모양겹잎이다. 작은 잎은 5~11개가 있으며 달걀 모양이고 점첨두 또는 원저이다. 가장자리에는 날카롭고 작은 톱니가 있다. 뒷면 붉은 맥 아랫부분에는 하얀 털이 있다.</p> <p>꽃은 5월에 황록색으로 핀다. 가지 끝에 원뿔모양꽃차례로 곧게 선다. 꽃잎은 5장이고 수술 및 암술대는 각각 3개이다.</p> <p>열매는 골돌과고 1~3개씩 달린다. 꼬부라진 타원 모양이고 예두이다. 또한 세로맥이 있고 붉은색이다. 씨앗은 검은색으로 윤기가 있으며 둥글다. 9월 초~10월 말에 익는다.</p> <p>줄기는 높이가 3m에 이른다. 가지는 굵으며 털이 없고 나무껍질은 녹갈색이며 둥글다. 가지를 꺾으면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.</p> <p>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중부지방에서 겨울을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. 음지와 양지 모두에서 잘 자란다. 땅의 질은 가리지 않지만 다소 습기가 많은 땅을 좋아하며 기름지고 수분이 적당한 바닷가에서도 양호하게 잘 자란다.</p> <p>씨앗으로 번식시킨다. 가을에 익은 씨앗을 채취하여 바로 뿌리거나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음 해 봄에 뿌리기도 한다.</p>